

소셜 라이프 충전소, 코펜하겐

당신이 뛰어들기만을 기다리는 푸른 바다와 거리를 장식한 색색의 꽃들, 카페테라스에서 오늘을 즐기는 사람들로 도시는 다시 활기차졌다. 지속 가능한 천연 소재 개발 전문가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보니 빌럼Bonnie Hvillum은 이 계절에 더없이 좋은 다섯 장소를 추천했다.



©Davy Denke

코펜하겐의 매력은?

“아름다운 경관은 물론이고 해안가와 인접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자전거로 누비기 편리한 아담한 규모 덕분에 페달을 밟기만 해도 금세 다채로운 풍경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오랜 역사 속에서 디자인과 혁신을 선도해 왔으며 현재도 여전히 디자이너, 예술가, 제작자들의 견고한 커뮤니티는 창의적인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어딜 가나 아는 얼굴을 마주치게 되는 이곳에서 우리는 깊은 소속감을 갖게 된다.”



유노 더 베이커리 JUNO the bakery

“외스터브로에 있는 제 스튜디오에서 꽤 가까워 자주 들르는 곳이에요. 몇 년 전부터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콤한 위안이 되어주는 카다몬 번 때문에 스튜디오 식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찾게 된다고. 문의 junothebakery.com

“소재 혁신가”

인간과 자연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디자인과 생물학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천연 소재 개발 전문가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디자이너인 보니 빌럼은 2019년 코펜하겐 외스터브로Østerbro 지역에 리서치 및 디자인에 전념하는 내추럴 머티리얼 스튜디오NATURAL MATERIAL STUDIO를 설립하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 개인 고객뿐 아니라 건축 스튜디오나 아디다스, 캘빈클라인과 같은 글로벌 브랜드, 덴마크 디자인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재료 과학, 예술적 독창성, 공간 디자인의 융합을 시도하며 선구적인 디자인 설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쓰리데이즈오브디자인3daysofdesign에서 선보인 화이트 유토피아White Utopia는 독자적인 바이오 기반 소재 개발 역량을 입증하는 사례 중 하나로, 미니멀한 디자인의 가구와 소품으로 구성된 유동적인 주거 공간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천연 소재를 탐구하고 잠재력을 이끌어내며 디자인계에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 온 그녀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진다.

Living
sense



© Bottega Barlie

2

보테가 발리Bottega Barlie

유서 깊은 프레데릭스타텐Frederiksstadens 지구,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개업한 현대적인 비스트로로, 이탈리아 요리에서 영감을 받은 메뉴와 다양한 와인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제 스튜디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음식 맛도 훌륭하고 분위기도 아늑하죠. 야외 좌석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고요!” 문의 barlie.dk



©Henrik Sylvest

5

루돌프 테그너 박물관 및 조각 공원 Rudolph Tegn timers Museum og Statuepark

도시 외곽에 위치한 이곳은 조각가 루돌프 테그너가 설계했으며, 그의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 지어진 이래 오늘날까지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이다. 넓은 대지 위에 놓인 작품 일부는 연구하 풍경 속에 녹아들어 있다. 독특하게도 내부에는 인공조명이 전혀 없어, 오직 자연광이 풍부한 봄과 여름에만 개방한다. 예술가 스스로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랐는지, 그의 영원이 고스란히 담긴 기념비적인 공간이다. 오는 10월까지 <레인보 토네이도Rainbow Tornado>전을 진행하는데, 무지개색으로 뒤덮인 10m 높이의 나선형 조각품이 압도적이다. 문의 rudolphtegner.dk



© Esther Karitzag

라 반치나La Banchina

레스토랑, 카페, 와인 바, 그리고 사우나를 갖춘 이곳은 환경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어획된 생선과 유기농 식재료만을 사용하기에 메뉴는 계절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내추럴 와인 또는 커피에 크루아상도 좋은 선택이지만, 물놀이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손꼽혀요!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문을 여니, 출근 전 새벽 수영을 하거나 퇴근 후 시원한 음료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제격이죠.” 문의 labanchina.dk

토르발센스 뮤지엄 Thorvaldsen's Museum

신고전주의 예술가 베르텔 토르발센Bertel Thorvaldsen의 작품 세계로 빠져드는 곳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작품을 국가에 헌납하는 조건으로 박물관 건립을 요청했으며, 그렇게 국가 최초의 국립 박물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위풍당당하게 자리한 웅장한 외관뿐 아니라, 로컬들에게는 마음을 사로잡는 색채의 향연과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자이크 및 테라초 바닥으로 잘 알려져 있다. 문의 thorvaldsensmuseum.dk



©Jakob Laurvig



©Sarah Coghill